

군산시 짬뽕거리 먹거리 관광 명소화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동령길

2018년부터 20억여원 투입 조성

입점업소 임대료·시설비 지원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짬뽕 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군산짬뽕'을 특화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동령길을 선정해 조성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짬뽕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0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존 업소 2개소, 신규 입점업소 4개소 등 총 6개소가 짬뽕특화거리에서 성업 중이다.

이곳은 빈해원과 흥영장을 비롯해 과거 인기를 끌었던 만춘향 등 중국 화교들이 짬뽕 음식점을 운영해온 거리다.

시는 군산짬뽕을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환경정비 공사 시행, 관광 맛지도 제작·홍보, TV 방송, 짬뽕 페스티벌 개최 등 짬뽕 특화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및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해 신규입점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짬뽕 특화거리 내 입점업소에 한해 재정지원 사업(임대료 및 식자재 구입비) 및 신규 입점업소에는 시설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군산시 장미동에 조성된 짬뽕거리.

문다해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올해 짬뽕특화거리 전선지중화 사업(500m)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짬뽕 특화거리를 주제로 특색있는 이벤트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 홍보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짬뽕 특화사업을 근대역사문화 관광지구와 연계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 등 지원 확대

고창군이 건강한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횟수와 금액을 확대한다.

확대 지원될 시술 종류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 늘린다.

지원 금액은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이다.

또 만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신선배아는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으로 여성 연령별로 시술금액을 상한 차등 지원한다.

시술비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된다. 특히 보건소에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확인된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초과하더라도 시술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영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모든 군민이 원하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하반기 도로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익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중·소규모 도시 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자·간선제와 연계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시스템 구축과 도로위험감지 시스템 도입 등 2개의 솔루션을 수행한다.

도로 발생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등 40억원을 투입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플랫폼 구축과 노면위험요소 여부를 판단하는 도로위험감지 시스템 도입 사업을 전개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최적화된 교통정보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도로위험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노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정읍시민 코로나 속 연말연시 이웃사랑 뜨거웠다

사랑의 온도탑 240도 달성

목표 2배 넘는 8억5100만원 모금

정읍시민들의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위한 열기가 훈훈함을 넘어 뜨겁게 달아 올랐다.

정읍시는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최종 240도를 달성했다며 목표액 3억5500만원의 2배를 훌쩍 뛰어넘어 8억5100여만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온도가 상승한다.

올해 캠페인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기업, 단체들이 동참했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 잇따랐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돈을 기부한 어르신들과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을 전달한 어린이들, 총 300회의 헌혈을 기념하면서 모금에 동참한 공무원 등 각자의 사연과 정성이 모였다.

태인컨트리클럽이 1억원의 성금을 쾌척했고 에이스안전재수와 대일내장산컨트리클럽, 주식회사



태인컨트리클럽 관계자가 1억원의 성금을 정읍시에 전달한 후 유진섭(왼쪽 두번째) 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거간 등이 10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현금기부 외에도 생필품을 담은 희망박스와 김치, 돼지고기, 쌀,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의 기부도 이어졌다. 정읍시청 전 공직자들도 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정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 돌봄과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했다.

나눔 기부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게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성공적인 캠페인 결과는 시민과 기업, 기관·단체 등의 따뜻한 정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나눔의 향기가 널리 퍼져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동행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순창군 문화·예술인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

순창군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인의 자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순창군은 지역 내 교양문화 전문인력이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민간단체 등 자부담금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업 추진에 따라 순창군을 제외한 타 기관 공모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최대 25%)를 지

원하고 공모사업으로 교육·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역 공공시설물의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당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순창군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개인이다. 타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을 순창에서 추진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모사업에 선정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전문가는 사업 종료 전까지 연중 자부담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순창=정영근 기자 jyr

남원시, 시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총력

남원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실천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등 3대 실천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활 속 실천수칙 20가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안내책에 담아 배부, 시민 참

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 실천수칙 20가지는 에너지 절약,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가정에서 실천하기 쉽고, 이행 시 탄소 감축효과가 큰 생활방식 위주로 선정됐다.

시는 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구를 살리는 1일1행의 기적' 챌린지를 한다. 이번 챌린지는 탄소 제로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